



“카파르나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님께서 서 계셨던 돌계단을 볼 수 있다. 호수(바다) 근처인 그곳은 풀과 건초들이 풍부한 땅이다. 대추야자 나무도 많고 근처에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일곱 개의 샘이 있다. 주님께서서는 이 풍요로운 땅에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군중들을 먹이셨다. 주님께서 빵을 얹은 돌은 제단이 되었다. 마태오가 세금을 거둔 장소인 공공대로는 성당 담장 근처를 지나간다. 이웃한 언덕은 주님께서 참 행복을 선언하시러 오르신 곳이다.” 이것은 순례자 에게리아가 쓴 중세의 성지에 관한 소책자(381-384년)의 본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브가를 기억한 것 가운데 최고의 증거이다. 타브가의 그리스어 이름은 헵타페곤(Heptapegon, 일곱 개의 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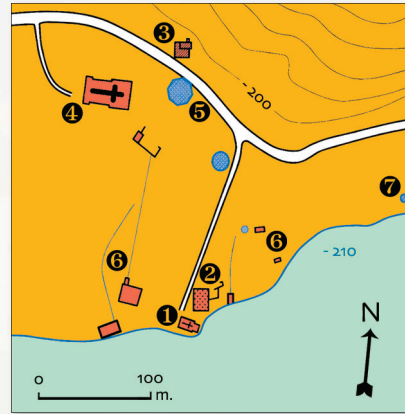
베네딕토 수도회 E. 마데르 덕분에 1932년에 빛을 보게 된 빵의 기적 성당은, 평지에 샘들 사이에 위치한다. 이 성당은 나일 강의 고대 모자이크 양식과 바위로 유명한데, 이는 곧 제대 앞에 빵과 물고기 모양이 새겨진 모자이크와 그 아래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먹이실 때 사용한 바위이다.

참 행복 선언 성당은 산 옆에 위치한다. 오래된 유적은 아래쪽 도로가에 있고(작은형제회 B. 바가티가 발굴), 새 성당은 더 높은 작은 언덕 위에 있다(건축가 안토니오 바를루치가 설계, 1938년). 성지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장소는 '주님의 식탁'(제대 아래에 있는 공경하을 바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다. 특별히 9세기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발현하시어 제자들이 기적으로 고기들을 잡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수위권을 주신 일화의 장소로 발전하게 되었다. 러시아 대수도원장 다니엘(12세기)은 “이 장소 위에 지어진 성당은 거룩한 사도들에게 봉헌되었다.”고 전한다.

고고학적 의미

인근 도시 가운데 막달라는 갈릴래아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이다. 1971-7년에 작은형제회의 V. 코르보 신부와 S. 로프레다 신부가 발굴하여 로마 시대의 도시 일부와(기원전 1세기-기원후 4세기), 비잔틴 시대와 아랍 시대의(기원후 5-9세기경) 교회 건물로 추정되는 유적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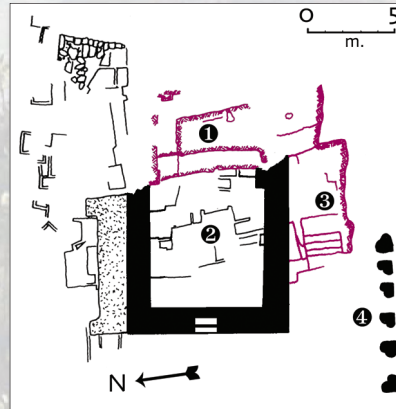
일반 도면



타브가:

- 1. 수위권 성당
- 2. 작은 십자군 요새
- 3. 비잔틴 시대의 참 행복 성당
- 4. 빵의 기적 성당
- 5. 비잔틴 시대의 다 각형식 물탑
- 6. 최근의 물레방아간
- 7. 비잔틴 시대의 순환식 물탑

고고학 도면



베드로 수위권 성당:

- 1. 주님의 식탁
- 2. 4-5세기 성당 유적
- 3. 에게리아가 언급한 돌계단
- 4. 열두 왕좌라 불리는 하트 모양의 여섯 개의 돌(5-9세기)



성지 개방 시간:

8.00-16.50

Tel.: 04-672,47,67

Fax: 04-671,69,62

www.custodia.org/en/sanctuaries/tabgha-and-magdala

이곳은, 엄숙하고 공손히 받들어 모셔야 할 거룩한 장소임을 명심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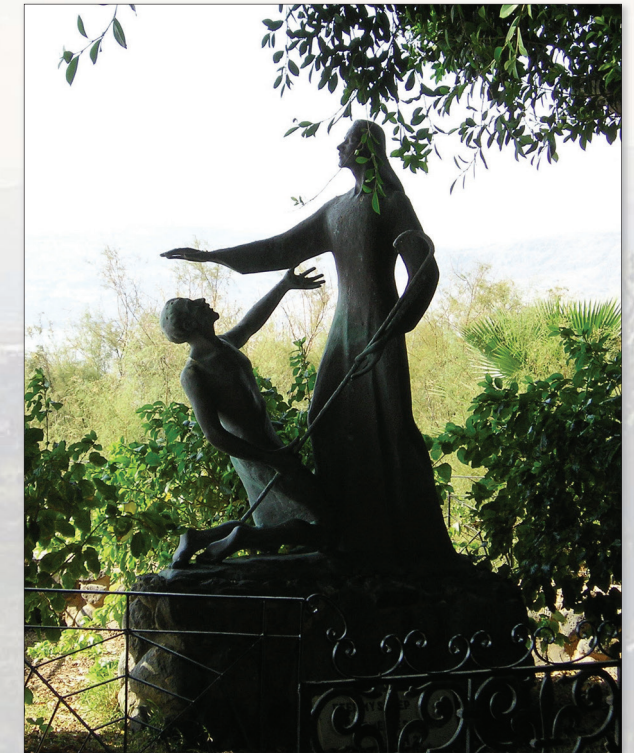
갈릴래아

타브가와 막달라

베드로 수위권 성당

빵과 물고기 기적 성당

참 행복 선언 성당



예수님 시대부터 카파르나움에 계속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전승을 이어받은 순례자들은, 복음서의 세 사건의 장소를 타브가로 자리 잡는다. 곧 빵의 기적,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발현, 참 행복 선언이 그것이다. 티베리아스로 가다가 갠네사렛 평원을 지나면 막달라에 이르는데, 이곳은 열정적인 주님의 제자 마리아에게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이름이 주어진 장소이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 21,1-17]

그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래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대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걸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물에서 백 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물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물으로 끌어 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원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첫 번째 빵의 기적

[마르 6,34-44]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이백 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 명씩 또는 십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오천 명이었다.

✦ 당신 섬리로 베드로와 사도들의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느님께 우리의 청원을 올립니다.

1. 베드로의 후계자이신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어주시신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자들과 신앙인들이 분열과 갈등으로 찢어진 교회의 그물을 수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게 하소서. ◎

3. 통치자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온 인류의 일치를 위한 표징과 도구를 발견하게 하소서. ◎

4. 천주교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와 자선과 평화의 결속으로 교황과 주교가 이끄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은총과 책임을 느끼게 하소서. ◎

5. 고통과 시련을 겪는 모든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무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적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도록 하소서. ◎

6. 순례자인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마리아 막달레나와 첫 여성 제자들을 항구히 기념하여, 사도들의 은총이 저희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 믿는 이들의 최고의 목자이신 하느님, 당신 아드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한 번의 세례로 성별된 이들을 완전한 믿음과 사랑의 유대로 결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 아멘.

